

# I.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 사회적소수자 범주 :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 모니터기간 : 장애인 2003년 2월 1일 ~ 6월 30일,  
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 모니터대상 : KBS, MBC,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을 가지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여전히 '인권'이 보장된 사회란 말이 무색한 현장들을 접하곤 한다. 상식밖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성적소수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혼혈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인 등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설 곳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매스 미디어, 그 중 방송은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권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송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다.

모니터링은 1)장애인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양프로그램(휴먼다큐, 정보 프로그램)과 시사프로그램(시사·고발·토론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2)이주노동자 3)성적소수자로 나누어 분석했다.

	모니터대상 교양 프로그램	사회적소 수자 관련 방영회수	모니터대상 시사 프로그램	사회적소수자 관련 방영회수	총계 (147건)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KBS	11	68	8	18	86		
					74	14	0
MBC	7	29	5	10	39		
					33	4	2
SBS	3	18	3	4	22		
					20	1	1

방송 3사 사회적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빈도

공중과 방송 3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결과, 방송 3사 모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4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두개의 채널을 합해서 86건, MBC는 39건, SBS는 22건이 전부였다.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KBS가 74건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중 64건이 교양프로그램(휴먼다큐, 정보성)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MBC와 SBS도 교양프로그램이 각각 33건, 20건으로 시사교양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1년을 조사기간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KBS 14건 MBC 4건 SBS 1건 밖에 되지 않았다. 조사기간에 고용허가제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적소수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1년 조사기간 중 KBS 0건, MBC 2건, SBS 1건에 불과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애인의 경우 각 방송사가 그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와 성적소수자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동안 겨우 22건 밖에 되지 않아 방송사들의 무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각 방송사에서 내놓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이 전체 편성빈도 중 50%를 넘게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은 KBS는 19개, MBC는 12개, SBS 6개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언어, 경제, 음악 등의 교양프로를 대상에 첨가하지 않아 좀 더 적은 수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표

방하면서 오락성을 지닌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를 계기로 각 방송사가 기본적인 공영성의 잣대인 편성빈도 만큼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바로잡길 기대해 본다.

## I. 장애인 관련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 1. 교양프로그램(휴먼다큐, 정보성 프로그램)

#### (1) 모니터 취지 및 목적

휴먼 다큐멘터리란, 가수, 탤런트 등의 연예인처럼 대중에게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그리는 장르다. 여전히 스타 시스템의 가동 없이는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최근 시청층의 다양화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사마다 휴먼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니터는 양적으로 많아진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다루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결과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 프로그램도 함께 분석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 (2)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과 모니터 기간

##### -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 지상파 3사의 교양프로그램 (휴먼다큐와 정보프로그램)

##### - 모니터 기간

: 2003년 2월 1일 ~ 2003년 6월 30일

(기본 조사기간은 같고 신설 프로그램은 모니터 기간의 차이가 있음)



표 1) 교양프로그램 속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모니터 기간

방송사명	모니터 대상프로그램	모니터 기간	비고
KBS 11개	연작에세이 어머니	20030623 ~	* [사랑의 리퀘스트]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프로그램으로 휴먼 다큐멘터리와 오락적인 부분이 결합된 프로그램임으로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함.  * MBC는 iMBC개편으로 인해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모니터 기간을 20030301 이후로 한정함.  * 포토에세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분석이 부적합해 제외  * [스타 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프로그램으로 휴먼 다큐멘터리와 오락적인 부분이 결합된 프로그램임으로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함.
	사랑의 가족	20030201 ~	
	VJ클럽		
	열린채널		
	이것이 인생이다		
	피플세상속으로		
	인간극장		
	VJ특공대		
	영상기록 병원24시		
	생방송 세상의 아침		
	안전정보 잠깐만		
MBC 9개	6mm 세상탐험	20030305 ~	
	따뜻한 세상	20030409 ~	
	생방송 화제집중	20030303 ~	
	안전지대	20030504 ~	
	와! e 멋진세상	20030305 ~	
	지구촌리포트	20030308 ~	
	특집다큐멘터리	20030303 ~	
	희로애락	20030515 ~	
SBS 3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20030510 ~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0030201 ~	
	휴먼스토리 女子	20030512 ~	

※ 오락성을 띠거나 전문분야(경제, 음악, 언어 등) 교양프로그램은 제외

### (3) 모니터 결과

#### 1) 편성 분석

휴먼 다큐멘터리가 인간을 주제로 감동을 자아내는 장르라는 점에서 장애인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등

장하는가의 양적인 비율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장애인을 평범한 이웃으로 그리기보다는 동정과 위안의 대상으로 삼아서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이용했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송 전반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방송3사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어느 정도의 빈도로 다루었는지를 점검하였다.

표 2) 교양프로그램의 장애인 관련 방송 빈도

방송사	프로그램명	전체방송회수 / 쪽지수	장애인 관련 방송		비고
			쪽지수	비율	
KBS 11개	연작에세이 어머니	6회	0쪽지	0%	
	사랑의 가족	14회/28쪽지	14회/28쪽지	100%	
	VJ클럽	21회/105쪽지	0쪽지	0%	
	열린채널	12회	1쪽지	8.3%	
	이것이 인생이다	19회	3쪽지	15.7%	
	피플세상속으로	20회/60쪽지	8쪽지	13.3%	
	인간극장	105회/21주제	30회/6주제	28.5%	
	VJ특공대	20회/80쪽지	0쪽지	0%	
	영상기록 병원24시	18회	7회	38.8%	
	생방송 세상의 아침	128회 / 384쪽지	1회/1쪽지	0.2%	
	안전정보 잠깐만	31회	0쪽지	0%	
<b>KBS 소계</b>	<b>394회</b>	<b>64회</b>	<b>16.2%</b>		
MBC 7개	6mm 세상탐험	54회/270쪽지	1쪽지	0.3%	
	따뜻한 세상	9회/25쪽지	6쪽지	24.0%	
	생방송 화제집중	83회	9회	10.8%	
	안전지대	9회/27쪽지	0쪽지	0%	
	와! e 멋진세상	15회/50쪽지	2쪽지	4.0%	
	특집다큐멘터리	60회	4회	6.6%	
	희로애락	7회/11쪽지	3쪽지	27.2%	
	<b>MBC 소계</b>	<b>237회</b>	<b>45회</b>	<b>18.9%</b>	
SBS 3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7회	7회	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20회/78쪽지	8쪽지	10.2%	
	휴먼스토리 女子	35회	3회	8.57%	
	<b>SBS 소계</b>	<b>62회</b>	<b>18회</b>	<b>29%</b>	



표2)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모니터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KBS 11개, MBC 7개, SBS는 3개가 있었다. 각 방송사의 대표적인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은 KBS [사랑의 가족](100%),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100%) 두 개였고, MBC [따뜻한 세상](24%), 희로애락(27.2%), 영상기록 병원24시(38.8%), 인간극장(28.5%) 등의 휴먼다큐 프로그램이 장애인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다.

방송3사의 교양프로그램 회수 대비 방영빈도를 보면 KBS는 16.2%, MBC는 18.9%, SBS가 29%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SBS의 경우 대상 프로그램 수가 3개로 너무 적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희귀병 환아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높은 비율이 나왔을 뿐, 정작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방송사라고 평가하기엔 적절치 않다.

각각의 프로그램을 평가해보면 KBS [피플 세상속으로](13.3%)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10.2%)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날 등의 특정일 이외에도 꾸준히 장애인 관련 내용을 방영했다.

반면 MBC [와! e 멋진세상](4.0%), [6mm 세상탐험](0.3%)의 경우 장애인의 날이 있는 특정한 한 주에만 관련 내용을 방영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편성을 보였다.

대표적인 VJ프로그램인 KBS [VJ클럽](0%), [VJ특공대](0%), MBC [6mm세상탐험](0.3%)은 장애인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 VJ 프로그램이 작은 소재로 다양한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KBS [안전경보 잠깐만], MBC [안전지대]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자 안전이 필요한 곳을 취재한다는 기획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그램 모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어린이 보육시설, 대학교 기숙사, 공동주거시설의 화재 대비능력 등을 체크하면서 정작 사고 발생시 가장 큰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의 장애인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2) 내용 분석

표3) 교양프로그램 속의 장애인 주제별 분류 (%는 각 프로그램별 비율)

방송사	프로그램명	고발	미담	행사	사건 사고	정보	총계
KBS	사랑의 가족	2(5.8%)	16(47%)	15(44.1%)			34
	열린채널	0	0	0	0	1	1
	이것이 인생이다	0	3(100%)	0	0	0	3
	피플세상속으로	0	8(100%)	0	0	0	8
	인간극장	0	6(100%)	0	0	0	6
	영상기록 병원24시	0	7(100%)	0	0	0	7
	생방송 세상의 아침	0	1	0	0	0	1
	<b>KBS 소계</b>	<b>2(3.5%)</b>	<b>41(69.4%)</b>	<b>15(26%)</b>	<b>0</b>	<b>1(1.7%)</b>	<b>59</b>
MBC	6mm 세상탐험	0	1(100%)	0	0	0	1
	따뜻한 세상	0	5(83%)	1(16.6%)	0	0	6
	생방송 화재집중	0	4(44.4%)	1(11.1%)	4(44.4%)	0	9
	와! e 멋진세상	0	2(100%)	0	0	0	2
	특집다큐멘터리	0	4(100%)	0	0	0	4
	희로애락	0	3(100%)	0	0	0	3
	<b>MBC 소계</b>	<b>0</b>	<b>19(76%)</b>	<b>2(8%)</b>	<b>4(16%)</b>	<b>0</b>	<b>25</b>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0	7(100%)	0	0	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0	8(100%)	0	0	0	8
휴먼스토리 女子		0	1(100%)	0	0	0	1
<b>SBS 소계</b>		<b>0</b>	<b>16(100%)</b>	<b>0</b>	<b>0</b>	<b>0</b>	<b>16</b>
<b>총계</b>	<b>2(2%)</b>	<b>76(76%)</b>	<b>17(17%)</b>	<b>4(4%)</b>	<b>1(1%)</b>	<b>100</b>	

### ① 천편일률적인 미담 이야기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73.3%를 차지한 미담이었다. 물론 인생 역정 속에서 진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미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KBS [사랑의 가족]과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나 정보제공보다는 미담과 시혜적인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KBS [사랑의 가족]의 경우 장애인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고발성 내용(5.8%)이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성(0%) 내용들이 많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행사를 소개해주거나(44.1%), 미담(47%)을 담는데 그쳤다. 프로그램 끝 부분에 '정보 알람방' 코너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보다는 구색맞추기에 가까웠다.

방송사별로 미담의 비중을 살펴보면 KBS가 69.4%, MBC 76%, SBS는 100%로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미담이야기 일색이었다.

## ② 방송내용 속에 담긴 미담의 유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방송사	장애극복 인간승리	장애인 실생활 이야기	시혜성 미담	억지눈물, 동정성, 흥미위주의 미담	소계
KBS	12(29.2%)	13(31.7%)	5(12.1%)	11(26.8%)	41
MBC	5(26.3%)	7(36.8%)	5(26.3%)	2(10.5%)	19
SBS	0	3(23%)	4(30.7%)	6(46.1%)	13
소계	17(23.2%)	23(31.5%)	14(19.1%)	19(26%)	73

### - 장애인 실생활 이야기

최근 가공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리얼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도 리얼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 31.5%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어려움까지 짚어낼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미담성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았다.

KBS [인간극장]이 자연스러운 장애인 이야기를 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 [인간극장-윤경이와 치원이(2003.2.7)], [맨발의 기봉씨(2003.2.10)], [인간극장-지선아 사랑해(2003.3.31)], [인간극장-피터팬(2003.6.6)]등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사랑하고 아파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눈물샘을 자극해 감동을 짜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감정이입을 요구하는 장치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 - 억지눈물, 동정성, 흥미위주의 미담

장애인의 삶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불쌍하게 그려내거나, 신기한 사람, 특이한 사람 등으로 그려내는 미담이 26%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나친 최루성 프로나 흥미 위주의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미담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억지눈물성 미담이 많다는 점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KBS [이것이 인생이다]와 KBS [영상기록 병원24시]이다. KBS [이것이 인생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2003.6.10)]는 장애인 딸과 아들을 둔 엄마의 한많은 삶을 그려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인지체 아들과 청각장애를 가진 딸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는 모습을 너무 비극적으로 재연하였다. 방송 속에는 '모자란 자식', '죄많은 어미', '귀머거리', '얼치기 자식', '등신 자식', '칠폰이 자식', '정신 나간 놈', '바보', '박복한 어미' 등의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또한 거침없이 사용했다.

물론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과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 휴먼 다큐멘터리가 현실을 담아내는 장르라는 점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여과없이 담아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만을 그려주길 장애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프로를 통해서 비장애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어두운 부분만을 부각시켜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은 모두 불행한 사람으로 표현해 일반사람들의 편견을 없애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체 방영분중 1-2개가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100%가 이런 내용을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KBS [영상기록 병원 24시- 삼 쌍둥이 가족 이야기(2003.4.4)]에서도 삼 쌍둥이 부모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찍으려고 시도했고 지나친 클로즈업으로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강한 의도가 보였다.

MBC [희로애락 - 뮤코다당증 주호, 주완]의 경우에도 화면구성에서 아이의 혈관을 찾으려고 손등과 발에 여러번 주사바늘로 찌르는 장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소리내어 평평 우는 주호와 주완이의 모습, 고향을 지르며 도망가는 아이의 모습을 끝까지 촬영하는 등은 지나치게 장애인의 힘든 면만을 자극적으로 그리



고자 노력한 흔적이 눈에 띈다.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을 흥미위주로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오락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재 자체도 아주 특이한 장애인의 경우만을 다루면서 재연장면도 장애인이 직접연출해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방청객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듯한 “아우”라는 탄성소리도 흥미위주의 접근을 부채질하였다.

#### - 장애극복 영웅 이야기

기존 방송에 나타난 장애인상(象)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웅적인 장애인이다. 이런 내용을 주되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23.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인생역정 드라마는 사실상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에게 더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승리의 유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장애인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의식이나, 위안을 받는다는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장애극복 인간승리의 내용들은 자력으로 장애와 사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대다수 평범한 장애인을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영웅 장애인’의 미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 시혜성 미담

미담의 또 다른 유형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비장애인의 모습을 담은 시혜성 미담도 20.6%나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 관련 방송 중 주인공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도와주는 사람들인 경우를 분석한 표5)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방송사	장애인이 주인공인 경우	장애인이 주변인인 경우
KBS	49	11
MBC	17	8
SBS	11	1
소계	77(79.4%)	20(20.6%)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은 칭찬 받아야 할 덕목이다. 또한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시혜성 미담 방송이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혜성 미담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장애인 복지를 개인의 희생과 노력, 인식의 전환에만 의존하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시혜성 미담에서 대부분 장애인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의존적인 대상으로 비취지고, 그를 돕는 가족이나 기타 비장애인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 ③ 지나간 행사 소개

휴먼 다큐멘터리의 내용분석에서 미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17.5%를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당일 현장을 취재해서 행사가 끝난 뒤에 방송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문화 행사는 대부분 홍보의 일환으로 사전에 자료화면과 함께 기획의도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 행사는 항상 뒷북치는 형식으로 사후에 방송되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 ④ 선정적인 사건 사고 취재

장애인과 관련한 사건·사고는 4.1%의 비중을 보였는데 그중에서 선정적인 접근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MBC [생방송 화제집중 - 13세 소녀의 슬픈 봄날 (2003.5.10)]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아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취재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재연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인터뷰와



재연자의 재연 모습을 비교해 본 결과 동일인물을 연상케 했다. 또한 재연 장면에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온 몸을 클로즈업해서 훑어 내려가는 화면과 초록색 잔디에 빨간색 장미꽃이 짓밟히는 이미지, 범인들의 범행동기라며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짓을 만지다 그렇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길게 보여준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 결론 부분에서도 성폭행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도록 인생을 망쳐버린 것인 양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이라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한 것도 조심성 없는 취재태도이다.

### 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만 편중된 취재원

이번 모니터에서는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취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인 관련 방송을 만들 때 지나치게 장애인 본인과 가족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지시설 전문가나 정부관계자, 의사 등 전문적인 조언과 제도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할 수 있는 취재원에 대한 취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방송사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가	일반인	정부관계자	장애인 가족	의사	기타
KBS	52	26	25	2	38	16	18
MBC	21	5	9	1	16	2	15
SBS	10	3	7	0	4	3	3
소계	83	34	32	3	58	21	36
	31%	12.7%	11.9%	1.1%	21.7%	7.8%	13.4%

\* 복지시설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함.

모니터 결과, 표6)과 같이 장애인(31%), 장애인 가족(21.7%)이 52.7%로 취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있다. 이밖에 복지시설 전문가와 일반인, 기타의 부류 사람들이 취재원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정부관계자의 경우는 거의 3명에 불과했다. 이는 휴먼다큐나, 정보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장애인의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사회제도적인 문제나 장애인이 직접 겪게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장애인 관련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사·고발·토론 프로그램)

### (1) 모니터 취지 및 목적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고 불편부당한 생활을 하게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제도에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장애인들의 동정이나 편견 또한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동권조차 확보되지 않은 게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이에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시사프로그램들이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해 왔다.

### (2)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과 모니터 기간

- 모니터대상 : 지상파 방송 3사 시사·고발·토론 프로그램.

- 모니터기간 : 2003년 2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신설프로그램은 기간이 다름)

방송사명	모니터 대상프로그램	모니터 기간	비고
KBS (8개)	취재과일4321	20030201 ~	
	추적 60분		
	일요진단		
	수요기획		
	시청자칼럼		
	현장르포 제3지대		
	심야토론		
	100인토론		
MBC (5개)	아주 특별한 아침	20030303 ~	* MBC는 iMBC개편으로 인해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모니터 기간을 2003년 3월 1일 이후로 한정함.
	시사매거진 2580	20030303 ~	
	PD수첩	20030303 ~	
	MBC 스페셜	20030601 ~	
SBS (3개)	이슈&이슈	20030504 ~	*시사진단은 신설 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0201 ~	
	그것이 알고 싶다		
	염재호 교수의 시사진단	20030511 ~	



(3) 모니터내용

1) 편성분석

방송사명	모니터 대상프로그램	전체방송회수(회)	장애인 관련 방송분(회)	비고
KBS	취재파일4321	21	1	
	추적 60분	22	1	
	일요진단	20	1	
	수요기획	19	1	
	시청자칼럼	90	5	
	현장르포 제3지대	20	1	
	심야토론	21	0	
	100인토론	20	0	
	<b>KBS 소계</b>	<b>233</b>	<b>10 (4.2%)</b>	
MBC	아주 특별한 아침	85 (425쪽지)	6 (6쪽지)	
	시사매거진 2580	17	1	
	PD수첩	17	1	
	MBC 스페셜	5	0	
	이슈&이슈	9	0	
	<b>MBC 소계</b>	<b>133</b>	<b>8 (6.0%)</b>	
SBS	뉴스추적	18	1	
	그것이 알고 싶다	17	1	*VO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모니터 안됨
	염재호 교수의 시사진단	8	0	
	<b>SBS소계</b>	<b>43</b>	<b>2 (4.6%)</b>	
<b>전체 총계</b>		<b>409</b>	<b>20 (4.8%)</b>	

편성에서의 소외

방송 3사의 시사프로그램 중 장애인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KBS 10개(4.2%), MBC 8개(6.0%), SBS 2개(4.6%)뿐이었다. 이는 6개월의 모니터 기간 동안 KBS 233회, MBC 133회, SBS 43회라는 방영횟수에 비해 극히 소수여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편성에서의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각 방송사의 간판급 시사 프로라 할 만한 프로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MBC 대표적 시사고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은 4개월 동안 17회 중 1회 밖에 방영되지 않았고, <시사매거진>은 17편 51쪽지 중 1편 1쪽지 밖에 없었다. <100분 토론>에서는 4개월동안 18회 방송 중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두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 KBS는 더 미약한 결과를 보였다.

<추적 60분>의 경우 22편 방송 중 단 1편, <취재파일 4321>의 경우 4개월간 총 21편 63쪽지 중 단 1편 1쪽지를 다루는데 그쳤다. SBS의 대표 시사프로인 <그것이 알고싶다>, <뉴스추적> 또한 4개월 동안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1편씩 밖에 다루지 않았다.

KBS의 <생방송, 세상의 아침>의 경우, 4개월 동안 128회 중 '장애인의 날'에만 1회를 방송했다. 그것도 시혜적 관점에서 다룬 미담성 보도에 그쳐, '체면치레'에 그쳤다.

여전히 장애인 차별과 이동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3사의 시사·고발·토론프로그램이 장애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우리 방송이 장애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2) 주제별 분류

	KBS	MBC	SBS	총계
고발성	<취재파일4321> - 1) 죄많은 엄마를 용서해 다오 (4월 20일)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 진폐위로금 3년이 지나면 못 준다니요? (4월 18일) - 장애연금, 대체 누구를 위 한 것 인가?(5월 28일) -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장 애, 산 재인정 안된다?(6 월 9일) -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 니다?(6월 13일)	<시사매거진> - 달한 세상의 아이 들(4월 20일) <PD수첩> - 버려지는 장애아, 천륜을 끊는 이유 (4월 22일) <아주 특별한 아침> - 800g 저체중아 소혜의 소망(6월6일)	<뉴스 추적> - 자폐아, 침묵속에 간 헌 아이들(5 월 7일) <그것이 알 고 싶다> -대구 지하철 방화 대참사 의 진상	10건
미담	<생방송 세상의 아침> - 서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의 1일 장애체험(4월 19일) - 이것이 세계 최고! 장애우 전용 호텔(4월 19일)			1건 (2꼭지)
행사		<아주 특별한 아침> - 2) 천식환자 거북 이 마라톤 (4월 14일)		1건
사건사고	<추적 60분> - 대구참사 연속기획 제 2부 “비극은 끝나지 않았 다”(2.23)	<아주 특별한 아침> - 3) 정신질환자 명 의 도용한 카드 사기(4월 3일) - 어이없는 두 딸아 이의 죽음(4 월 22 일) - 사회질환 우울증 의 실태(4월 22 일)		3건 (4꼭지)

	KBS	MBC	SBS	총계	
정보	<수요기획> - 정신질환자 8%시대, 행복공동체 로 가는 길 (5월 28일) <일요진단> - 장애인의 날 특집, 차별과 편견 의 벽을 넘는다(4월 20일) <현장르포 제3지대> - 명명! 귀가 되어드릴게요(3월18 일) <생방송 세상의 아침>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 수 인터뷰(4월 19일)	<아주 특별한 아침> - 난 왼손잡이야, 지 원법 발의(6월6일)			5건

프로그램의 주제를 고발, 미담, 행사, 사건·사고, 정보 등 총 5가지로 분석한 결과, 고발성 주제는 총 10건, 미담성 2건, 행사 소개 1건, 사건·사고 4건, 정보 5건으로 나타났다. <추적 60분>이나 <PD수첩>, <시사 매거진>, <뉴스추적> 등 정통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사건·사고를 다룬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에서 다룬 장애인 관련 방송은 심층 취재와 대안 모색 등 고발 프로그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한 수준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거나 대안 모색의 노력조차 찾기 힘든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과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준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지난 2월 23일 방영된 KBS의 <추적 60분> “대구참사 연속기획 제2부-비극은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대구 참사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용의자 김씨의 경우를 부각시키면서 정신질환 장애인 전부를 하나의 범죄집단인 양 방송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공격적 성향과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시종일관 정신질환자들을 위협하게 묘사해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키게 했다.

또한 이후 김씨의 상태가 우울증이 약간 있을 뿐,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관련 방송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보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는지 보여줬다.

물론 <추적 60분>의 경우 대안제시에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높이 평가할만 했다.

정보 소개 위주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 <아주 특별한 아침>이나 <생방송



세상의 '아침' 등에서도 장애인이란 주제는 소외의 대상이었다. 이들을 고려한 정보 제공의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었고, 선정적인 사건사고나 감정적인 미담 소개 등이 대부분이었다.

3) 시사고발 프로그램 익명 취재원 조사

방송사	프로그램명	익명취재원 : 실명취재원(명)
MBC	PD 수첩 <버려지는 장애아, 천륜을 끊는 이유>	11 : 27
	시사매거진 2580 <달린 세상 갇힌 아이>	0 : 8
KBS	추적60분 <대구참사 연속기획 제2부>	14 : 14
	취재파일 4321 <죄많은 엄마를 용서해다오>	3 : 9
SBS	뉴스추적 <자폐아, 침묵속에 갇힌 아이들>	20 : 28

각 방송사의 대표적인 고발프로그램에 대한 익명취재원 조사 결과, <시사매거진>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들은 높은 비중의 익명취재원을 인용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SBS <뉴스추적>과 KBS <추적60분>의 경우 실명취재와 익명취재가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익명취재는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다.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익명 취재를 통해 무책임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가벼운 접근태도 - 감정에 호소, 흥미위주에 선정적

	감정적 흥미/선정적	제도적	인권적	관찰자적· 객관적	정보전달	경제적
KBS	10	6	2	3	0	1
MBC	10	5	0	3	2	0
SBS	1	0	0	0	0	0
총계	21	11	2	6	2	1

시사프로그램 접근방법 분석 (중복체크 허용)

장애인 프로의 접근방식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비판으로 다뤄져야 할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선정적인 화면과 흥미 위주의 접근 방식이 많았고, 시혜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까지 했다. 분석 결과, 위 표에서와 같이 감정적·흥미·선정적 접근이 21건을 차지해 시사고발 프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였다.

특히 지난 4월 22일 방송된 MBC의 <PD수첩> “버려지는 장애아, 천륜을 끊는 이유”에서는 장애아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애아를 시종일관 어둡고 음울한 화면으로 처리하고, 욕설 등 불필요한 장면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불쌍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물론 뒷부분에서 보호시설 수용조건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체 방송 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지난 4월 2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달린 세상의 아이들”의 경우, 격리된 자폐아와 그렇지 않은 자폐아 등의 사례를 상당수 나열하면서 자폐아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폐아와 일반 아동이 함께 공부하기 힘든 현실을 집중 고발하면서도, 이 문제를 일반 아동을 둔 부모들의 편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왜 설치하기 힘든 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정책적 고려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취재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5) 장애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프로그램 돋보여

미약한 수준이지만 장애인 관련 방송의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방송된 KBS의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시대 -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은 대구 참사로 인해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씻어 주는 내용이었다. 정신질환과 우울증의 차이, 정신질환자의 특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회격리가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더욱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전 국민의 8%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사회가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적절히 제시해 정부의 정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KBS의 <시청자 칼럼-우리가 만드는 세상> 역시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신문고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짧은 방송시간(5분)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들어 보는 등 문제 해결을 함께 찾는 노력이 보이는 구성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내용이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 II.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링

### 1. 모니터 취지 및 목적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통과됐다. 4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본적인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고용허가제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사회의 굵은 일을 도맡아 해오면서도 그에 걸맞는 댓가를 전혀 받지 못했던 이주노동자에 대해 방송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다.

### 2. 모니터 조사기간 및 대상 프로그램

- 조사기간 : 2002. 7. 1 ~ 2003. 6. 30

\* MBC는 VOD 서비스가 되는 3월부터 모니터

\* 신설프로그램도 기간 차이)

- 조사대상 프로그램 : 지상파방송 3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

### 3. 모니터 결과

#### (1) 편성분석

방송3사 시사교양프로그램은 총 132개이다. 총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영된 프로그램별 비율과 각 방송사의 대표적 시사정보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해 방영한 프로그램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방송사	프로그램 명	전체편수	방영편수	방영 비율(%)
KBS	추적60분	47회	2회	4.3
	취재파일4321	50회 (143쪽지)	2회 (2쪽지)	1.4
	KBS저널	34회	1회	
	피플세상속으로	48회 (147쪽지)	3회 (3쪽지)	2.0
	현장르포제3지대	50회	2회	4
	일요진단	50회	1회	2
	100인토론	32회	1회	3.1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207회	2회	0.1
	<b>KBS 소계</b>	<b>518회</b>	<b>14회</b>	<b>2.7 %</b>
MBC	아주 특별한 아침	85회	1회	1.2
	특집 다큐멘터리	59회	3회	5
	<b>MBC 소계</b>	<b>144회</b>	<b>4회</b>	<b>2.7%</b>
SBS	뉴스추적	39회	1회	2.5
	<b>SBS 소계</b>	<b>39회</b>	<b>1회</b>	<b>2.5%</b>

※ 이주노동자를 다룬 프로그램만 목록에 정리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영비율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MBC의 <시사매거진2580>, <PD수첩>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당 방송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영분이 한편도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 (2) 내용 분석

### 1) 주제별 분류

	KBS	MBC · SBS
고발 (11건)	<추적60분> -강제출국6개월 전 26만 불법체류노동자들 (02.9.14) -외국인여성 인신매매(02.10.05) <취재파일4321> -연수생인가 노예인가(02.10.13) -한국이 무서워요(02.12.29) <KBS저널> -불법체류 노동자는 어디로(03.01.19)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02.12.30)	<MBC 아주 특별한 아침>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해법은 무엇인가(03.03.28) <MBC 특집다큐멘터리-파란눈의 연예인> 1부 외국연예인이 몰려온다 (03.3.17) 2부 이방인들의 무대(03.03.18) 3부 코리아드림, 별은 내 가슴에(03.3.19) <SBS 뉴스추적> '끌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백션(02.9.27)
미담성 (6건)	<피플세상속으로> -중국동포를 지키는 은발의 해결사들(02.09.05) -베트남 노동자들의 친구 최성원 목사(02.09.26) -외국인 노동자들의 엄마, 마마킴 <현장르포 제3지대> -노래하는 네팔청년(02.11.26) -5700명의 기적(02.12.1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9월의 소원우체통-외국인노동자의 추석맞이 (02.09.19)	
행사 (1건)	<현장르포 제3지대> -희망의 드리블, 월곡동의 작은 월드컵(03.06.03)	
사건·사고 (0건)		
정보(2건)	<일요진단> -고용허가제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03.04.13) <100인토론> -외국인고용허가제도입논란(03.04.20)	



프로그램을 고발, 미담, 행사, 사건·사고, 정보 등 총 5가지 성격으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고발 11건, 미담 6건, 행사 1건, 정보 2건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고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다수가 정부정책과 관련되거나, 외국인 여성의 국제인신매매 같은 선정적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이들 시사고발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출국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파장과 그 대안으로 시행되었던 연수제도의 문제점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나열에만 급급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실시 여부와 소개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외국인 취업 여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추적60분>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2002.10.5)와 <취재파일4321> '한국이 무서워요' (2002.12.29)와 <SBS 뉴스추적> '팔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넥션(2002.9.27)의 경우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보다 선정적인 화면구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에 반해 <MBC 특집다큐멘터리> '파란눈의 연예인 3부작'의 경우 국내 다양한 연예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담성 프로그램들의 경우, 시혜적인 시각의 접근이 많아 이주노동자의 본질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주변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아쉬움을 남겼다. 이 중 <현장르포 제3지대> 희망의 드리블, 원곡동의 작은 월드컵(2003.06.03)의 경우는 안산, 원곡동에서 벌어진 국가별 이주 노동자들 간의 축구경기를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삶으로 담담하게 그려내 차별성을 보였다.

<일요진단> 고용허가제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2003.04.13)과 <100인토론>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논란(2003.04.20)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유일한 프로그램들이었다. 이 중 <100인 토론>은 양적인 중립에만 초점을 맞춰 토론에 나온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 3) 취재원 분류

	이주 노동자	인권 운동가	일반인	정부 관계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중소기업협 회 관계자	기타
KBS	13	12	9	6	6	2	5
MBC	2	2	2	2	2		5
SBS	1	1		1	1		1
합	16	15	11	9	9	2	11

※ 중복체크 허용

취재원의 경우 고른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거의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 주변상인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각은 거의 담아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운동가 및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비해 정부관계자 및 중소기업협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미비해 산업연수생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문제 해결의지를 전혀 알수 없었다.

<SBS 뉴스추적> '팔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넥션(2002.9.27), <추적60분> '외국인여성 인신매매(2002.10.05)', <취재파일4321> '한국이 무서워요(2002.12.29)'의 경우는 대부분의 인터뷰가 익명으로 처리되어 취재의 불성실함을 보였다.

### 4) 접근방법 분석

	감정적·흥미·선정적	인권적	경제적	기타	합계
KBS	8	3	3	1	15
MBC		3	1		4
SBS	1				1
	9	6	4	1	20

※ 중복체크 허용



접근방법 조사결과, 감정·흥미·선정적 접근이 9건, 인권적 접근이 6건씩, 경제적 접근이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플세상속으로>은 대부분 인권운동가의 도움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주변인으로 다뤘고, 이주 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나온 프로그램들 역시 시혜의 대상 혹은 이들의 삶을 미화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았다.

인권적인 접근을 시도한 <취재파일4321>의 '연수생인가 노예인가(2002.10.13)'은 연수생제도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있었으나 대안제시의 미흡함을 보였다. <추적60분>의 '외국인여성 인신매매(2002.10.05)'와 <취재파일4321>의 '한국이 무서워요(2002.12.29)', <SBS 뉴스추적> '팔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넥션(2002.9.27)의 경우, 외국인 여성의 강제 매춘을 강요당하는 현황 및 이들의 인권을 다룬 프로그램이지만, 화면구성 및 피해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적60분>의 '강제출국 6개월전 26만 불법체류노동자들(2002.9.14)'과 <KBS저널> '불법체류 노동자는 어디로(03.01.19)', <아주 특별한 아침>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해법은 무엇인가(2003.03.28)'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 가치로만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5) 여성이주노동자 인권 유린, 선정적으로 다뤄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이주 노동자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부실함과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들로 <추적60분>의 '외국인여성 인신매매(02.10.05)'와 <취재파일4321>의 '한국이 무서워요(02.12.29)', <SBS 뉴스추적> '팔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넥션(02.9.27)의 경우 화면이 매우 어둡고 안정적이지 못한 촬영방식과 익명취재원 과다처리,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부분의 고발프로그램이 E-6비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E-6비자에 대한 편견과 객관적 접근을 흐리고 있다면, <MBC 특집다큐멘터리-과란논의 연예인 3부작>은 E-6비

자를 받고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활동분야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인 연예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활동에 따른 법적 규제 및 장단점,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연예인의 꿈과 노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과 정보를 제공했다.

휴먼다큐 프로그램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그려낸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가 40만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경제적인 가치내지는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방송의 태도는 큰 문제다. 이제는 이주 노동자를 별도의 분류대상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 의무가 있는 방송사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 III. 성적소수자 관련 방송모니터링

#### 1. 모니터 취지 및 목적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물론 하리수나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선정적인 접근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고, 편견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성적소수자들의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드러내놓지 않아 에이즈의 원인이라거나, 무분별한 성적 문제로만 냉대 받기 일췌였다. 다른 국가에서 동성애 혼인을 허가하고 있는 추세, 성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맞춰 이제는 우리 사회 또한 성적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성정체성에 대한 기초적인 정립에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바로잡는 과정이 공론화 되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은 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봤다.

#### 2. 모니터 조사기간 및 대상 프로그램

- 조사기간 : 2002. 7. 1 ~ 2003. 6. 30

(\* MBC는 VOD 서비스가 되는 3월부터 모니터)

- 조사대상프로그램 : 공중파 방송 3사의 시사교양프로그램

#### 3. 모니터 결과

	프로그램 명	전체편수	관련 방영 편수	비고
KBS	-	-	-	전체 시사교양 프로그램중 한편도 없었음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동성애 유해매체 아니다>	85회	1회	
	생방송 화제 집중 <트랜스젠더의 아버지 김석권교수, 아름다운 그녀 한소영>	83회	1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동성애의 두 얼굴>	44회	1회	* 관련 방송만 VOD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모니터 불가

방송사별 성적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방영 빈도

#### 1) 편성분석

성적소수자를 다루고 있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은 1년이라는 조사기간동안 단 3건에 불과했다. 또한 KBS는 2개의 채널을 합해 전무한 실정이었다. 방송 3사 모두 연예오락프로그램들을 통해 성적소수자를 희화화하는 반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사회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때, 이는 방송이 성적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고 보기 보다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오락매개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2) 내용분석

MBC 생방송 화제집중 <트랜스젠더의 아버지 김석권교수, 아름다운 그녀 한소영>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을 환자로 규정하고 성전환수술을 통해 사회활동에 활발히 적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술만 하면 마치 새 삶을 살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그려내, 성적소수자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에 그쳤다.

MBC 아주 특별한 아침 <동성애 유해매체 아니다>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제목과 달리, 동성애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한 성적소수자들의 키스신과 포옹 등의 선정적인 화면 반복과 불균형적인 익명 취재를 사용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부풀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이는 주시청층이 주부임을 감안할때, 자녀에 대한 불안감만을 근거없이 확산시킬수 있다.

모니터 결과, 겨우 2건 밖에 없는 관련 프로그램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만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됐다. 양의 절대적인 부족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 중 가장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방송의 질적 양적 관심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IV.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방송모니터링을 마치며

방송 3사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방송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편성분석의 경우,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KBS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의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SBS가 가장 적은 방영비율을 나타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하지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좀 차별성 있는 시도들을 보이기는 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장애인의 경우, 양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동정적인 접근 사례의 휴먼다큐가 많았고,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에서도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안제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언제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성과 제작기획에 있어서 적어도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접근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의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와 성적소수자의 경우 접근태도나 내용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여줬다. 1년간의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나, KBS는 성적소수자에 대해 1건도 다루지 않았고, SBS와 MBC의 경우 1~2건 정도 다룬것에 그쳤다. 몇개 되지 않은 프로그램조차도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거나, 피상적인 문제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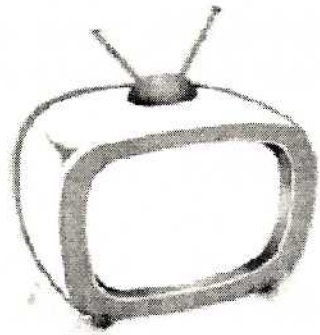
이주노동자의 경우, 1년간을 모니터조사기간 동안 KBS가 가장 꾸준한 관심을 보여줬다.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문제를 적절히 지적해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MBC <특집다큐 - 파란눈의 연예인>도 새로운 접근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간에 비해 MBC와 SBS의 프로그램 비율이 너무 적었고, 본질적인 접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방송 공공성의 중요한 측도이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존엄성 침해나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 계층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사회민주화와 불균등해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 결과는 방송사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프로그램 편성과 기획에서 제작까지 세심한 논의와 다양한 취재, 토론을 거쳐, 방송 3사의 사회적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의 새로운 질적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끝>



#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 II.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 사회적소수자 범주 :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
- 모니터 기간 : 2003년 7월 1일 ~ 2003년 8월 31일
- 모니터 대상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공중과 방송3사의 메인뉴스를 대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 까지 2달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량 및 보도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방송3사의 총 보도건수는 5,940건이며 이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는 표(1)과 같이 74건으로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방송사별로는 KBS의 경우 총 2224건 중 33건으로 전체의 1.48%로 나타났고, MBC는 총 2040건 중 22건으로 1.07%, SBS는 총 1676건 중 19건으로 1.13%를 각각 차지했다. (뉴스 마지막 부분의 단신종합보도는 비율에서 제외)

이번 보고서에서 집계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건수는 본회에서 7월 29일 발표한 「사회적 소수자 관련보도를 통해 본 방송3사 '공공성' 분석 보고서」(총 보도건수는 3,192건으로, 이중 사회적 소수자 관련보도는 13건으로 0.4%로 조사 발표)에 비해 조금 늘어난 보도량을 보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특히 성적소수자 관련보도는 총 4건(0.07%),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총 16건(0.27%)에 그쳐 이들에 대한 방송보도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KBS	MBC	SBS	계	비율(%)
총보도량	2224	2040	1676	5940	100
장애인 관련보도	26, 단신1건	15, 단신5건	13, 단신2건	54, 단신8건	0.91 (단신제외)
성적소수자 관련보도	2	2	단신1건	4, 단신1건	0.07
이주노동자 관련보도	5	5	6	16	0.27 (단신제외)
계	33, 단신1건	22, 단신5건	19, 단신3건	74, 단신9건	1.25 (단신제외)
비율(%)	1.48	1.07 (단신제외)	1.13	1.25 (단신제외)	

### 1. 관련보도분석

#### 1) 장애인 관련보도

	KBS	MBC	SBS	계	전체비율(%)
총보도량	2224	2040	1676	5940	100
장애인 관련보도	26, 단신1건	15, 단신5건	13, 단신2건	54, 단신8건	0.91 (단신제외)
각 방송사 비율(%)	1.17 (단신제외)	0.74 (단신제외)	0.78 (단신제외)		

장애인 관련보도는 두 달의 모니터 기간 동안 KBS 26건(1.17%), MBC 15건(0.74%), SBS 13건(0.78%)으로 총 54건(0.91%)의 기사를 보도했다. KBS는 총 2,224건 중 26건을 보도해 전체의 1.17%로 방송3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표(2) 참조)

표(4)과 같이 장애인 관련보도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전체 54건 중 사건·사고가 25건, 미담성 보도가 12건, 정보 5건, 고발이 4건, 행사소개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사고와 미담 보도가 총 54건 중 37건((68.51%))을 차지해 전체의 7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또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에 관한 고발성 보도는 총 54건 중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편향된 주제로 정작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보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다.

가장 많이 보도된 사건·사고 뉴스에서는 장애인을 무력하고 불쌍한 모습이거나 불안한 존재로 그리는 데 그치고, 원인이나 사후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특히 정신 질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집중취재-아무나 살인(KBS 7.18)', '대책마련 시급(KBS 7.18)'에서 보이듯 빈곤, 실직 등 살인의 여러 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정신질환 병력을 부각시키고있어 악의적 보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내용만으로는 정신질환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만 조장될 뿐이고 오히려 이런 식의 보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장애 사병 구타(MBC 7.17)', '두 얼굴의 원장님'(SBS 7.21), '원생 감금 폭행(KBS 8.11)'에서는 사고 방지책 등의 내용없이,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피해자 장애인의 비참한 모습을 선정적 화면과 인터뷰로 담아내는 데 급급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미담성 보도의 경우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일반인들이나 초인적 의지로 성공한 장애인들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돌아온 태권소년(KBS 8.28)', '두 손가락으로 딛 미국 CPA'(MBC 8.10청각장애인 야구팀)(KBS 8.8/SBS 8.13/MBC 8.12~13)이나 일본 고교야구 타격왕 후보인 의족 착용한 타자(MBC 8.10 /SBS 8.20)에 관한 보도와 같이 극적인 인간 승리식 보도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런 성공담 보도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합리를 극복하는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려진다. 즉,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개인의 놀라운 의지로 극복한 사례를 부각해 보여주면서 이러한 차별을 양산해 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기 못하고 있다. 그저 '대단한 사람이다'며 놀라워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미담 보도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 상대적인 무력감만 가지게 할 공산이 크다.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하려면, 영웅 소개식의 보도에 머무르기 보다는 성공하기 까지 겪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의 지적까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4) 방송3사 메인뉴스의 '장애인' 관련 보도 주제

방송사	분류	사건·사고	미담	정보	고발	행사	집회 및 사회단체 대응	기타	계
kbs		12	4	4	2	4	-	-	26
mbc		7	5	1	2	-	-	-	15
SBS		6	3	-	-	4	-	-	13
계		25	12	5	4	8	0	0	54

이밖에 민사랑-지혜 삼 쌍둥이 관련 보도가 KBS 3건, MBC 4건(단순2건), SBS 2건으로, 분석기간동안사건사고 기사 25건 중 9건을 차지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단순하게 분리수술 진행 상황의 중계 보도에 그쳤다. 그 아 이들이 왜 싱가포르에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지, 국내 희귀병 치료 지원 정책 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다.

또 여전히 장애인 관련한 보도에서 '정상인도 하기 힘든' 식의 기자와 앵커의 멘트가 나타났다. '이제는 두 사람(KBS 7.25)', '눈물로 세웠어요(KBS 7.26)', '日, 빛나는 의족(MBC 8.10)', '우린 할 수 있다(mbc 8.12)' 등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다. 이런 식의 무분별한 용어 사용은 마치 장애인이 '비정상인'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는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2) 성적소수자 관련 보도

	KBS	MBC	SBS	계	비율(%)
총보도량	2224	2040	1676	5940	100
성적소수자 관련보도	2	2	단신1건	4, 단신1건	0.07(단신제외)
각 방송사 비율(%)	0.09	0.1	0		

모니터기간 동안 KBS 2건, MBC 2건, SBS 단신 1건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보도가 전체 5,940건 중 0.07%인 4건 밖에 보도되지 않았다.(단신 제외)

또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 총 4건 중 국립보건원의 AIDS관련 발표자료에 따른 보도가 3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3사의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소재 발굴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이 국립보건원 발표관련 뉴스의 경우 모두 AIDS의 감염원인이 동성애라는 식으로 연관지어 직 간접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다.

표(5)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 주제별 분류

	KBS	MBC	SBS	총계
사건 사고	<수혈로 2명 감염(8월 23일)>	-	-	1건
미담	-	-	-	0건
정보	<하루에 1.4명 감염(7월 15일)>	<“집중취재” AIDS 무섭게 번진다(7월 15일)> <“집중취재” 청소년 감염 심각(7월 15일)>	-	3건
고발	-	-	-	0건
행사	-	-	-	0건
집회 및 사회단 체 대응	-	-	-	0건
기타	-	-	<“오늘의 세계” - ‘동성애’ 주교 파문(8월 17일)> : 단신보도	1건

7월 15일자 국립보건원 발표는 작년대비 42.6% 증가라는 것과 감염원인의 97.5%가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는 점, 10대 청소년의 성병 감염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주내용이었다. KBS와 MBC는 모두 익명의 동성애자를 취재원으로 내세워 '동성애 = 동성접촉' 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10대 동성애자'를 에이즈와 연관시켜 크게 부각시켰다. 7월 15일 KBS <하루에 1.4명 감염>보도에서는 “놀라운 것은 10대 청소년 동성애자까지 AIDS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단정적인 앵커멘트를 보이고 있다. 또한 KBS<하루에 1.4명 감염>과 MBC<무섭게 번진다> 모두 배경 화면으로 성매매업장과 포르노 사이트 등의 선정적인 화면을 사용해 동성애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렸다.

KBS <하루에 1.4명 감염>의 에이즈 감염 분석그래프를 살펴보면, 국내이성 46.5%, 동성접촉 31.6%, 국외이성 19.4% 순으로 배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성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65.9%로 동성접촉에 비해 두 배가 넘는데도 이성접촉을 국내외로 나눈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동성접촉' 을 부각시켜 혼란을 주고 있다.



또 MBC의 경우는 두 꼭지를 할애해 집중취재를 했음에도 정작 근본적인 문제 지적이나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미약했다. 청소년의 AIDS 감염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원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무분별한 성접촉이었음과 잘못된 성의식 확산이라는 내용은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방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확산 추세'라는 화제에만 집중했다. 전체 보도 중 0.07%에 불과한 성적 소수자의 보도는, 그나마도 성정체성 용어인 동성애와 성행위인 동성접촉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자 모두가 에이즈 원인이자 환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 번 심어준 내용이었다.

### 3) 외국인노동자 관련보도

	KBS	MBC	SBS	계	비율(%)
총보도량	2224	2040	1676	5940	100
외국인노동자 관련보도	5	5	5	15	0.25
각 방송사 비율(%)	0.22	0.24	0.2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도는 모니터기간 동안 KBS 5건, MBC 5건, SBS 5건으로 전체 5,940건 중 0.25%인 15건에 그쳤다.

	KBS	MBC	SBS	총계
사건·사고	<'외국인 고용법' 통과(7월 31일)> <인력대란 모면(7월 31일)>	<한시름 덜었지만(7월 15일)> <'고용허가제' 통과(7월 31일)> <인력난 덜었지만(7월 31일)> <"이젠 안심..."(7월 31일)>	<고용허가제 통과(7월 31일)>	6건
미담	-	-	-	0건
정보	<농촌에도 연수생(7월 31일)>	-	<인력난 '숨통'(7월 31일)> <'외국인' 잡아라(7월 31일)>	3건
고발	<대학이탈 급증(7월 17일)> <"심층취재"-'고용허가제' 위기>(7월 29일)	<"함께 사는 세상"-코시안의 눈물(8월 9일)>	<"집중 취재"-"일감이 없어요"(7월 21일)>	4건
행사	-	-	<"테마 기획"-'불법' 폐고 축제(8월 2일)>	1건
집회·시민단체 입장	-	-	-	0건
기타	-	-	-	0건

특히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되자 이에 맞춘 당일(7월 31일)자 보도가 SBS 3건, MBC 3건, KBS 2건으로 총 8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후속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가장 중대한 이슈이고 30여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달린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제화하는 노력을



보이는커녕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보도에 그쳤다. 이러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당일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각 방송사는 법안 통과를 놓고 여러 쪽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나 불법 체류자들의 불안감 등의 인터뷰 등 단순 사실보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이나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이 가지는 의미, 향후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해 법안 통과날 전부터 관련 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통과 당일에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부실한 스트레이트 보도의 나열에만 그쳤으니 시청자들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의 실태와 처우개선을 위한 고발 보도는 전혀 없었다.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이후의 보도는 '불법 폐고 축제(SBS 8.2)'가 유일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서 벗어난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진 축하행사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장 출국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만 5만 6천명이라는 내용이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단순히 행사소개에 그쳤다.

#### 4) 마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방송3사의 보도의 분석 결과, 우선 방영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 전체 뉴스의 1.25%에 불과한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는 그 대부분이 사건·사고와 미담성 뉴스였다. 또 생색내기식 일회성 보도가 대부분이었고 후속보도는 전무한 수준이었다. 발표자료에 의존하는 따라가기 식 보도도 많았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뉴스는 단순 보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인권'의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채로 사회적 소수자를 무관심과 차별 속에 소외시켜왔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이지만 다수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함께 가야 하는 존재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둔감했던 인권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 공익을 추구하는 방송의 책무이다. 본질적 접근과 함께 차별의 원인들을 고발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제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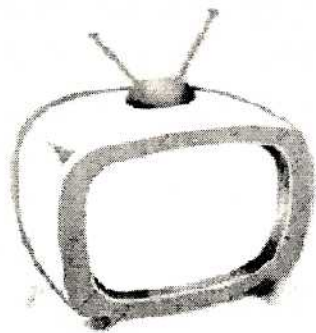
뉴스의 사회적인 성질은 보도가치 판단과 그것을 수용하는 대중의 판단 사이의 차이와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그러나 보도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회적 다수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는 보도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사회적 편견을 더 극대화시키고 사회적 소수자를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효과를 보일 위험이 크다. 더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방송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해 볼 때 그 파급력은 실로 막대하다. 뉴스는 사회구성원에게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도의 기준이 다수가 아닌 다양성이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끝>



민인권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링이 선정함

**좋은 · 나쁜 방송프로그램**  
**좋은 · 나쁜 보도프로그램**



○ 좋은 방송프로그램

KBS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 시대-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2003.5.28. 방영)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특히 대다수 언론보도는 ‘정신질환 장애인’을



참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언론은 이들을 격리가 필요한 위험한 존재로 단정지었고, 사회적인 공포심을 부추기는 데에 앞다투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KBS의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 시대-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2003.5.28. 방영)은 정신질환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해 그간 사회에 팽배해 있던 공포심 등의 편견을 씻어주는 내용을 다뤘다. 정신질환과 우울증의 차이, 정신질환자의 특징 등에 대해 의료진 등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사회격리가 정신질환 치료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방송은 이미 전 국민 속에서 8%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를 사회가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 방송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방송에서 나타난 미담이나 인간승리류의 한정된 소재와 틀에 박힌 형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접근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돋보인다.

이에 본회는 KBS의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 시대-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2003.5.28. 방영)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찾기 모니터의 좋은 방송으로 선정했다.



## ○ 나쁜 방송프로그램

### MBC <생방송 화제집중- "13세 소녀의 슬픈 봄날">(2003.5.10.방영)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방송에서조차 이들의 차별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접근을 찾기 힘들다. 비참한 존재로 동정의 시선을 받거나 초인적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낸 경우 등 제한된 소재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극히 흥미위주의 접근이 다수이고, 이에 더해 선정적인 접근까지 있어 소수자 관련 방송 또한 시청률 지상주의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 "13세 소녀의 슬픈 봄날">(2003.5.10.방영)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소녀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 방송은 성폭행 사건 당시를 연상시키는 재연 장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도입으로 시작한다. 피해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가슴부터 클로즈업 해 온 몸을 훑어내리는 카메라, 재연 장면에서는 초록 잔디 위에서 빨간 장미를 짓이기는 구둑발 등 자극적인 화면을 담고 있다. 거기에 범인들과 아이와의 인터뷰에서 민망한 내용을 캐묻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또 약자 중의 약자인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주변의 무관심이나 안전망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충격적인 화면과 대사가 주를 이뤘다. 이에 덧붙여 결론부분에서는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건이라고 단정을 내려, 사후 대책 마련의 방법은 아예 배제한 무책임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회는 MBC의 <생방송 화제집중-13세 소녀의 슬픈 봄날>(2003.5.10.방영)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사교양프로그램 모니터의 나쁜 방송으로 선정했다.

## ○ 좋은 보도프로그램

### 미선정

방송 3사의 2달간 보도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나, 제도적 접근이나 대안 모색,

참신한 소재·주제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거나 다양한 접근이 이뤄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도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회는 좋은 보도를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 ○ 나쁜 보도프로그램

### KBS <하루에 1.4명 감염> (2003.7.15 방영)

### MBC 집중취재 <무섭게 번진다>와 <청소년 감염 심각>(2003.7.15 방영)

국립보건원의 AIDS관련 발표자료에 따른 보도 3건의 경우, 모두 AIDS와 동성애를 연관지어 직간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AIDS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7월 15일자 국립보건원 발표는 작년대비 42.6% 증가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98.4%가 무분별한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KBS, MBC의 에이즈 관련 보도 모두 청소년들의 감염이 심각하고, 그 원인이 동성애라는 식으로 접근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에이즈에 대한 위험성만을 조장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7월 15일 KBS <하루에 1.4명 감염>보도에서는 "놀라운 것은 10대 청소년 동성애자까지 AIDS에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단정적인 앵커멘트를 통해 동성애와 AIDS 감염을 직접 연결시켰다.

7월 15일 MBC 집중취재 <무섭게 번진다>와 <청소년 감염 심각>에서는 동성간 성접촉 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김모씨의 인터뷰 바로 뒤 "에이즈 감염원인의 97%는 무분별한 성접촉입니다. 보건 당국은 감염의 주원인이 동성접촉에서 이성접촉으로 옮겨감에 따라 갈수록 빠르게 번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통해 감염의 주원인이 동성접촉인 것처럼 보도했다. 98.4%가 무분별한 성접촉이 원인이라는 국립보건원의 발표가 무색하다.

KBS <하루에 1.4명 감염>의 에이즈 감염 분석그래프를 살펴보면, 국내이성 46.5%, 동성접촉 31.6%, 국외이성 19.4% 순으로 배치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동성접촉이 많아 보이게끔 했다. MBC <무섭게 번진다> 에이즈 감염 원인분석그래프 또한 이성간 성접촉 비율을 국내이성 46.5%, 국외이성 19.4%로 분리해 놓아 동성접촉 31.6%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즉 이성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65.9%로 동성접촉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높음에도 동성접촉을 부각시켜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MBC의 경우 두쪽지를 할애해 집중 취재를 했음에도 정작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제시는 부족했다.

또한 KBS<하루에 1.4명 감염>과 MBC<무섭게 번진다> 모두 미인촌 배경 화면과 포르노 자료 화면을 사용해 에이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매우 선정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AIDS 감염증가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그 원인이 무분별한 성접촉과 잘못된 성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그 예방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위험성과 감염 현황에만 초점을 맞췄다. 전체 보도 중 극소수를 차지하는 성적소수자의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접촉 조차 구분하지 못해 동성애자 모두가 에이즈 원인이자 환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본회는 KBS와 MBC의 7월 15일자 AIDS 관련 보도를 나쁜 보도로 선정했다. <끝>

## 『사회적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링』

# 간담회 보고서





## ◆ 간담회 세부사항 ◆

### ○ 간담회 참석자

#### ○ 제작진

- 박수진 PD (수요기획 제작자)
- 김 현 PD (일요스페셜)
- 송일준 PD (아주특별한 아침, 생방송 화제집중)
- 신영한 PD (그것이 알고 싶다)

#### ○ 인권 및 사회단체

- 장애우권익연구소 방송모니터팀
- 외국인 노동자의 집
- 동성애 인권연대
- 민연련 방송모니터위원회

#### ○ 민연련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팀

- 김연경, 김진숙, 송혜영, 정영은, 강윤경

#### ○ 일반 시민

### ○ 장 소 : 민연련 교육관

### ○ 일 시 : 10월 15일

### ○ 주 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 간담회 내용 ◆

### “소수자에 대한 방송의 관심 필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연련) 사회적 소수자 방송모니터팀은 지난 15일 3개월 여 동안 진행해온 소수자 관련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결과를 놓고 방송사 제작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이례적으로 방송3사 시사·교양 PD 4명이 참석해 시청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 “소수자에 대한 방송의 배려 부족”

민연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들을 평가했다.

민연련은 먼저 “장애인 관련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단편적인 미담 사례나 시혜적인 내용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노동자를 다룬 프로그램의 경우엔 “외국인 여성 국제인신매매 등 선정적인 주제에만 집중하거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만 관심을 두는 등, 정작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선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3편의 프로그램만이 방송돼 TV의 관심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민연련은 분석했다. 특히 그나마 방송된 프로그램들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만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민연련은 비판했다.



## “시청률 때문에...”

한편 TV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방송사 PD들은 “시청률 때문”이라며 난감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D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프로그램이 적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느 누구도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일선 PD의 입장에선 프로그램 제작이 먹고사는 일이기 때문에 소재선택 단계에서부터 시청률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KBS ‘일요스페셜’ PD는 “외주제작의 경우 시청률의 굴레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입을 연 뒤 “시청률을 높이지 못하면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송일준 MBC 시사교양국 ICP(책임프로듀서)는 시청률에 대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PD는 “어차피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공통 관심에 호소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지지를 위해 다수의 시청자를 소외시켜서도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 KBS ‘일요스페셜’ PD도 “요즘 시청자들은 질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서 “따라서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 좋은 프로그램 칭찬해 달라”

사회적 소수자들을 다룬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PD들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 이어졌다.

김현 KBS ‘일요스페셜’ PD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프로그램 포맷에 맞춰 모든 걸 압축하려다보니 깊이 있는 이해와 애정을 갖고 접근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수진 PD도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해 제대로 만들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았다”며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자기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D들의 이 같은 자기반성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송일준 PD는 “제작자들 중엔 성적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없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며 나름대로의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용환 PD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다”며 “사회적 소수자를 다루는 민감한 소재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면 제작자나 시청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들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한 김현 PD는 “하지만 일선 PD들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소수자의 입장에서 좀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수진 PD는 “시청률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시청자들의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방송에 대해선 대대적으로 칭찬해달라”고 말했다.

## KBS ‘수요기획’ 좋은 방송에 선정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사회적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모니터 시상식에선 KBS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시대-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연출 박수진, 5월28일 방송)이 좋은 방송에 선정됐다. 민언련은 “전 국민의 8%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를 사회가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한 프로그램”이라며 ‘수요기획’을 높이 평가했다.



민언련은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모니터 나쁜 방송에 MBC '생방송 화제집중' <13세 소녀의 슬픈 봄날>(5월 10일 방송)을, 나쁜 보도엔 KBS와 MBC의 에이즈 관련 보도(7월 15일 방송)를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좋은 보도는 대상작이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민언련은 '화제집중'이 정신지체 장애 소녀의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충격적인 재연 화면과 대사를 여과없이 내보냈다고 지적했으며, 에이즈 관련 보도의 경우 에이즈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보도해 성적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 <사회적 소수자 간담회 관련 보도>

##### 정신질환자 포용 돋보인 KBS <수요기획>

민언련 '사회적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모니터'에서 좋은방송에 선정

KBS <수요기획>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실시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좋은 방송'으로 15일 선정됐다.

민언련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대다수 언론이 정신질환 장애인을 격리가 필요한 위험한 존재로 단정짓는 태도를 보인 반면, 지난 5월 28일 방영된 <수요기획> '정신질환자 8%시대-행복공동체로 가는 길'은 국민의 8%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를 사회가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민언련은 이날 사회적 소수자 방송모니터 결과 발표 및 제작진과의 간담회에서 좋은방송에 <수요기획>을 선정하는 한편, '나쁜방송'에는 MBC <생방송 화제집중> '13세 소녀의 슬픈 봄날'(5월10일 방영, 이하 화제집중), '나쁜보도'에는 KBS와 MBC의 AIDS 관련 보도(7월15일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다룬 '좋은보도'는 없었다.

나쁜방송으로 선정된 <화제집중>은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가 당한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선정적인 재연 기법을 사용해 충격적인 화면과 대사가 주를 이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언련은 프로그램을 마무리지으면서 성폭행이 피해자를 회복할 수 없도록 인생을 망쳐버린 것인 양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이라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한 것도 조심성 없는 방송 태도라고 비판했다.

나쁜보도로 선정된 AIDS 관련 보도는 AIDS가 작년에 비해 42.6%가 증가했고 그 가운데 98.4%가 무분별한 성접촉이 원인이라는 국립보건원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AIDS의 원인이 동성애인 것처럼 보도하는가 하면 '동성애'와 '동성접촉'이라는 최소한의 용어 구분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BS <하루에 1.4명 감염>과 MBC <무섭게 번진다> 꼭지는 모두 배경 화면으로 성매매 업장과 포르노 사이트 등의 선정적인 화면을 사용하는 등 동성애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렸다.



민언련 사회적 소수자 방송모니터팀은 지난 3개월간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관련 보도교양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했다.

민언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장애인을 다룬 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관련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담과 시혜적인 관점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최루성 프로나 홍미 위주의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특히 <추적60분> “대구참사 연속기획 제2부 -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정신질환 장애인 모두를 하나의 범죄집단인 양 방송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또 이주노동자를 다룬 프로그램의 경우 대다수가 정부정책과 관련되거나 외국인 여성의 국제인신매매와 같은 선정적 이슈에만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KBS <추적 60분>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2002년 10월5일 방영), KBS <취재파일 4321> ‘한국이 무서워요’(2002년 12월29일 방영), SBS <뉴스추적> ‘팔려오는 여성들 - 국제인신매매, 그 검은 커백션’(2002년 9월27일 방영) 등이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선정적인 화면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언련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를 다룬 프로그램은 편성비율 면에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나마 받았지만 성적소수자를 다룬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 3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MBC가 <아주특별한아침>과 <생방송 화제집중>에서 각 1회씩, SBS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1회 방영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KBS는 2개의 채널을 합해 관련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민언련은 겨우 2건 밖에 없는 성적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역시 동성애에 대한 편견만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모니터는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에 따라 진행됐다.

정은경 기자 (미디어오늘) pensidre@mediatoday.co.kr

## 공중파, 소수자에 대한 관심 넓혀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무시된 지 오래다. 상식 밖의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자신의 성적체성을 찾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성적 소수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감수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 인권이란 말이 무색해진다. 이들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의식 형성과 여론 만들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공중파 방송 3사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에 관한 3사의 보도교양 프로그램을 모니터 한 결과, 성적은 양, 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 이보다 더 무관심할 수는 없다!

우선 편성에서부터 교양 프로그램에서의 전체 방송 꼭지 수 중 4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방송 빈도는 20%를 밀돌았다. SBS 경우, 조사 대상 프로그램 수가 3개로 너무 적고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특성 때문에 29%라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를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2.6%, 성적 소수자 관련 방송은 3사 모두 합해 총 3회의 저조한 방송 빈도를 보였다. 매일 보도되는 뉴스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관련 보도가 전체의 1.25%를 차지해 공중파 방송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 수박 겉도 못 훑아

저조한 방송 빈도도 문제지만, 적은 수라도 잘 만들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방송들도 칭찬 받을 것은 한 손에 꼽을 만했다. 장애인 관련 방송은 천편일률적인 눈물 짜내기 미담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표현해 장애인이 곧 비정상인인 듯한 인식을 심어줬다. 시사고발프로그램마저 선정적인 사건 사고를 다루기 급급하고 감정적 접근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장애인 복지를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만 초점을 맞춰 고발성이 떨어뜨리고 취재의 한계를 보였다. 특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할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관시켜 시청자의 편견을 조장했다. (7월15일 MBC, KBS 뉴스) 또한 성적 소수자와 여성이주노동자 인권 유린을 다루면서 성매매업장과 포르노 사이트 등의 화면을 사용하고 선정적 내용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소외시키는 것도 모자라



시청률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할 방송이 오히려 그들이 가진 편견을 시청자들에게 여과 없이 보내는 꼴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커녕 수박 겉도 제대로 못 훑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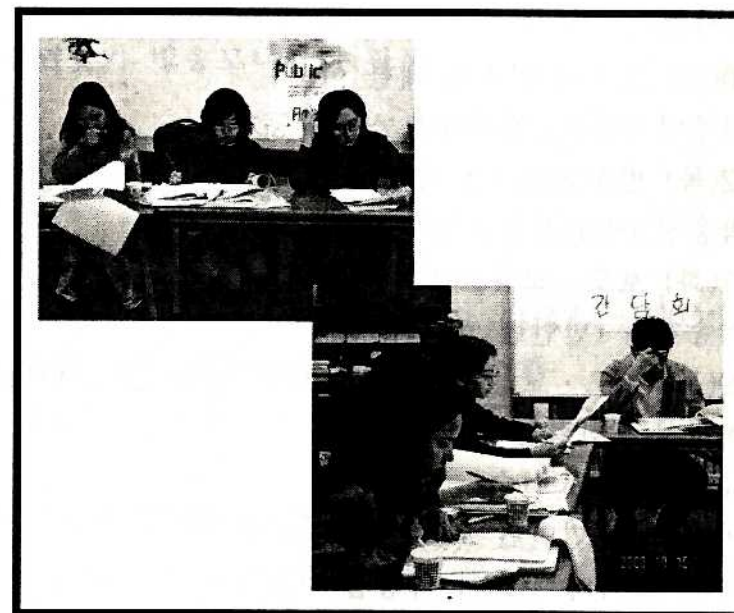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 무지는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방송은 한 우물만 파기 보단 팔방미인이 돼야 한다. 다양한 분야, 특히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때다. 좀 더 똑똑해진 방송을 기대해 본다.

송혜영 기자 (시민과 언론 객원기자) teazel@hanmail.net

## 소수자 인권찾기

## 방송모니터링

# 활동 보고





## 1. '소수자 인권 찾기' 방송모니터교실

- 교육 기획 취지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소수자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단체 및 시민들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방법론 교육과 실습,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실제 사회단체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 대 상 :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시민
- 일 시 : 2003.5.20(화) ~ 6.10(화) 7강 / 매주 화·목 / 저녁 7시
- 정 원 : 30명 모집 중 20명 수강
- 회 비 : 3만원 (강좌 4개 이상 출석시 전액 환급)
- 교육장소 : 민언련 교육관 (서대문 소재)
- 신청방법 : 입금 후 전화 신청 (02)392-0181
- 담당활동가 : 강윤경

- 강의 및 강사진

- 1강 5/20(화)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2강 5/22(목) 방송프로그램 속의 소수자  
- 박용진 (방송진흥원 연구원)
- 3강 5/27(화)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 - 보도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4강 5/29(목)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I - 시사교양  
- 최한성(문화평론가)
- 5강 6/3(화) 모니터 실습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6강 6/5(목)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김유진(민언련 기획부장)
- 7강 6/10(화) 언론관련 인권침해 구제 방법  
- 김택수(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 2. 간담회 및 모니터 요원 모집

### ○ 사회적 소수자 관련 단체 활동가 간담회

- 취 지 : 교육강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기획.

- 간담회 일정

○ 성적소수자 간담회

: 임태훈 (전 동인련 대표) 2003. 6. 13(금) 저녁 7:00

○ 이주노동자

: 김해성 목사 (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 2003. 6. 20(금) 저녁 7:00

### ○ 모니터 요원 모집

- 대 상 : 사회적소수자 관련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시민
- 모집 인원 : 10명
- 모니터 요원 신청자 : 9명

## 3. 소수자 인권찾기 방송모니터팀 활동

### ○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 모니터 기획 : 2003. 6. 15~30

- 모니터 기간 : 장애인 2003. 2. 1~8. 1

이주노동자·성적소수자 2002.7.1~2003.6.30

- 모니터 대상 : 방송 3사 보도·교양프로그램

- 모니터 방법 : 계량적 분석 및 질적 분석

### ○ 방송프로그램 모니터팀 운영

- 모니터팀 운영 : 방송 3사별 팀 구성, 방송 3사별 팀장 선정

- 방송사별 모니터 내용 총괄, 보고서 작성, 팀원 관리 등

- 보고서 작성 : 방송사별 팀장



○ 좋은프로그램·나쁜프로그램 선정

- 방송 3사 보도교양프로그램 중 좋은프로그램·나쁜프로그램 선정 및 발표

- 선정 기간 및 발표 : 2003. 10. 1~15
- 심사위원 : 모니터단
- 선정대상 : 방송 3사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 제작진 간담회

- 참석자 : 좋은 방송제작진과 방송 3사 시사교양국 PD, 사회적 소수자 관련 단체,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미디어 담당기자, 관심있는 시민 등

- 순서 :

- 1) 좋은 방송 시상식, 소감
- 2) 모니터 보고서 발제
- 3) 방송사 입장
- 4) 사회단체 입장
- 5) 질의응답

- 일시 : 10월 15일 (수) 저녁 7:00
- 장소 : 민언련 교육관

○ 소수자 방송프로그램 모니터 평가 및 결과자료집 발행

- 교육, 모니터링, 좋은프로그램·나쁜프로그램 선정 및 간담회 등 모니터 전반 활동에 대한 평가
- 모니터결과보고서와 간담회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총괄한 백서 발행
- 기간 : 2003. 10. 1~30

4. 평가

○ 단체내 평가

-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과 다른 단체와 연대 필요.

○ 담당자 평가

- 다른단체와의 연대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하고, 방송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
- 교육강좌상에는 인권교육과 실습보충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또한 좀더 과학적인 방식 필요.

○ 참가자들의 평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했고, 방송에 대한 문제점 발견.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활동에 대한 성취감.

○ 강사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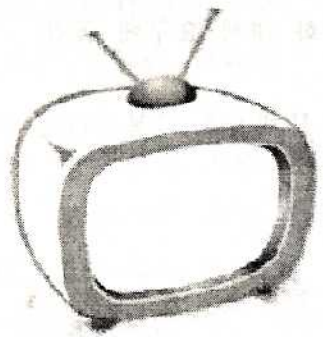
- 수강생들의 기본적인 준비 부족, 토론시간 확충.

○ 사회적 평가

- 방송의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인식, 변화 대책 요구에 공감.
-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수렴키로 결정.
- 관련 사회단체에서도 방송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지.



# 모니터링 분석 사례



## ○ 사회적소수자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평가틀

1. 방송사
2. 방송날짜
3. 프로그램명
  
4. 주제분석
  - 주제 :
  - ① 독창성
  - ② 시의성
  - ③ 공익성
  - ④ 완성도
  - ⑤ 편성적절성 :
  
5. 구성분석
  - 소재
  - 전개방식
  - 평가
  
6. 취재원 활용방식
  - 익명취재원은 얼마나 등장하는가
  - 취재원의 편중은 없는가
  - 취재원은 적절한가
  - 질문은 적절한가
  
7. 영상에 대한 평가
  - 화면 구성의 문제는 없는가
  - 음향효과
  - 촬영기법
  - 편집은 매끄러운가
  - 캡션의 적절성
  
8. 용어사용(필수체크)과 나레이션

○ 장애인 관련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CODING SCHEME

1. 방송사 프로그램명

2. 주제분류

(1)고발 (2)미담(시혜적 관점, 인간승리) (3)행사 (4)사건, 사고 (5)정보

3. 취재원

(1)장애인 (2)복지시설 전문가(사회복지사, 치료사, 자원봉사 등) (3)일반인 (4)정부관계자 (5) 장애인 가족 (6)의사 (7) 기타

4. 접근방법

- 감정적, 관찰자적, 제도적, 흥미적, 선정적 등으로 간단히 기술

5. 프로그램별 비중

- 기획의도와 비중, 시사고발 프로그램 비중 등

6. 특이한 유형

- 좋은, 나쁜 방송 또는 특이한 방송

7. 화면구성

- 음울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 흑여 악의적인 건 없는지

8. 장애인이 주인공인지 주변인인지의 분류

○ 이주노동자 관련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CODING SCHEME

1. 방송사, 프로그램명

2. 주제분류

- ① 고발 ② 미담 (시혜적 관점, 인간승리)
- ③ 행사 ④ 사건, 사고
- ⑤ 정보

3. 취재원

- ① 이주노동자
- ② 인권 운동가
- ③ 일반인(한국인)
- ④ 정부 관계자
- ⑤ 외국인 고용 사업주
- ⑥ 중소기업협회 관계자
- ⑦ 기타

4. 접근 방법

- ① 감정적 접근 (시혜의 대상)
- ② 인권적 접근 (노동자의 권리찾기)
- ③ 경제적 접근 (중소기업, 우리경제 살리기 대안)
- ④ 흥미성, 선정적 접근 (국제결혼, 윤락녀 등)

5. 프로그램별 비중

- ① 그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비중
- ② 시의성 (필리핀 여성, 국회, 제도변경시점 등)

6. 특이한 유형 (좋은 · 나쁜 방송, 특이한 방송)

7. 화면구성 (대략적인 분위기, 악의적인 것은 없는지)

8. 주인공 · 주변인 분류



○ 사회적소수자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CODING SHEET

1~4번, 8번은 코딩지(표)를 작성해 주세요. 빈란에 번호를 적어주고, 그 외에는 주관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방송사 프로그램명	2. 주제분류	3. 취재원	4. 접근방법	8. 분류

○ 사회적소수자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CODING SHEET 사례

1	2	3	4	5	6	7	8
방송사 / 프로그램명	주제분류	취재원	접근방법	프로그램별비중	특이한 유형	화면구성	주인공, 주변인 분류
mbc / 아주 특별한 아침 <어이없는 두 딸아이의 죽음>	(4)	(3), (6), (7) 사건 관련 형사, 범죄자 남편 (익명 취재원이 너무 많다 - 문제점)	(4) 선정적, 흥미적, 관찰자적	보통	약간 문제가 있음	장국영 영화중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부분만을 방영,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조장	(1) 주인공
mbc / 아주 특별한 아침 <천식환자 거북이 마라톤>	(3)	(1), (5), (6), (7) 행사 관계자, 홍보대사	(4) 흥미적	낮다 - 단순 행사 소개에 불과	나쁜 - 행사만 스케치할 게 아니라 천식환자들의 현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화에 나오는 천식환자를 자료 화면으로 보여줄 필요없다.	(1) 주인공

○ 사회적소수자 보도프로그램 모니터링 CODING SCHEME

1. 방송사 (1) kbs (2) mbc (3) sbs
2. 방송날짜 ( 예 : 8월 1일 → 0801)
3. 꼭지순서 (총개수 / 몇번째 꼭지)
4. 꼭지제목
5. 보도기자
6. 내용 (간략한 서술)
7. 보도주제  
(1)사건·사고 (2)미담 (3)정보 (4)고발 (5)행사 (6)집회 및 사회단체 대응 (7) 기타
8. 처리방법  
(1) 스트레이트 (2) 심층분석 (3) 기획보도 (4) 기타
9. 보도성격  
(1) 객관적 사실제시 (2) 주관적의견/ 감정적 접근 (3) 분석 및 평가 (4) 추측 (5) 기타
10. 정보채널 (인터뷰원)  
(1)공식적 채널 (2) 비공식적 채널 (익명취재)
11. 정보원 (중복체크가능)  
(1)장애인 (2)동성애자 (3)이주노동자 (4)정부관계자 (5)관련전문가(의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6)ngo단체 및 사회단체 운동가 (7)외신보도 (8)기타
12. 화면처리  
(1)선정적 (2)감정적(시혜적인 또는 음울한 등) (3)사실적





**발행일** 2003년 10월 30일

**발행처**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소** (120-012)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층

**전화** 02) 392-0181 **전송** 02)392-3722

**홈페이지** www.ccdm.or.kr **E-mail** ccdm1984@hanmail.net